



타악과 미세각의 명인 김대환씨

◇김대환씨의 '음각전' 에 나온 30여만자 반야심경(일부). 무한번수의 정염세계를 상징하는 듯하다. 사진=박재환 기자



자는 생각에 여기저기 쓰다보니 글씨가 점점 작아지게 됐다."고 말한다. 쌀 한알에 반야심경 283자를 새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임도가 안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수십만 알의 쌀과 씨름해 기어코 성공했다. 0.2mm의 조각칼을 만들었고 현미경을 보면서 일필휘지로 반야심경을 새겼다. 조각칼로 쓰기 위해 0.2mm의 텅스텐 핀을 만드는 일은 고도의 집중을 요한다. 부러지기 쉬워 정신이 조금만 떠돌면 풀러도 실패한다. 극세하게 텅스텐핀을 갈며, 제일 부드러운 것이 제일 강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쌀 한톨에 반야심경을 새기며 손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미세각에 불두하듯 소리에서도 원음(原音)을 듣게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지난하다. 열 손가락 사이에 여섯 개의 각기 다른 재를 끼우고 신명나게 소리를 만드는 그는 독특한 타법으로 전자를 컴퓨터음이 난무하는 세상에 지나는 추억을 느끼게 하는 옛소리, 자연의 소리를 전달하려 애쓴다.

그의 연주회에는 이벤트가 따른다. '인간과 소리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현대무용이 어우러지기도 하며 즉석 좌서쓰기 등의 퍼포먼스가 벌어져 음악과 조화를 이룬다. 50년 넘게 북을 두드려왔지만 그는 요즘도 하루 일곱시간 이상 두드리며 연습을 게을리 않고 있다.

"이 세상의 박자는 홀수박(拍)과 짝수박으로 나뉘고 생각합니다. 짝수박자는 배우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박자지만 홀수박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울 수 없는' 박입니다. 모든 박자는 일박에서 시작하니 가장 위대한 박자가 일박이지요." 일박속에 모든 리듬이 다 들어있다. 일박은 무박(無拍)과도 통한다. 산골 할머니가 손으로 휘휘 저어다 쳐다 맞아들여가는 것이 일박이다.

그는 연주할 때 입속으로 반야심경을 외다. 박자를 따로 세지 않아도 반야심경 독송만으로 기가 막히게도 운율과 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내 글씨의 세계하고 내 음악의 세계가 다른 줄 알지만 하나(-)"라고 강조하는 그가 온갖 행위를 통해 이루려고 한 것은 일박에서 모든 박자가 비롯됐을 처럼 하나가 전체이면서 전체가 하나라는 "일즉다 다즉일(-即多 多即-)"의 세계가 아닐까. 내가 곧 전체요, 내속에 전체가 있고 나는 전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상즉상입(相即相入)의 관계를 그는 연주로, 30만자의 반야심경 글씨로, 283자가 들어있는 한 톨의 쌀로 보여주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마음 열면 원음이 들려요”

‘세서 미각’의 달인, 손 아닌 마음으로 작업  
글씨·연주로 ‘一即多 多即一’ 세계 보여줘

누가 소리를 보았다고 하는가. 절대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글씨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마음으로 듣고 느끼는 것이다.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7일부터 18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김대환씨(70)의 '음각전(音覺展)'은 바로 비움속에서 채움을 체득하는 그러한 자리였다. 큰 검은 천에 은색 불펜으로 쓴 30여만자의 반야심경. 해서 행서 초서 등 아름다운 서체로 반야심경 전문이 1300회나 쓰여져 전시장은 온통 '반야의 세계'였다. 특히 폭 25m 길이 10m의, 700번 쓰인 대작은 그 크기도 그렇지만 영혼을 빨아 들일 것 같은 무한번수의 정염세계를 보여준다. 조금 떨어져 보면 '관음대위력(觀音大威力)'이란 큰 글씨가 증첩돼 나타나 더욱 장관이다. 김대환씨는 개막 첫날 멋진 타악연주로, 전시작품에 '사인(sign)'을 했다.

쌀 한 알에 반야심경 283자를 새겨 1990년 기네스북에 오른 '세서미각(細書微刻)'의

달인 김대환씨. 13세 어린 나이부터 스틱을 잡은 이래 70세를 넘긴 요즘도 드럼을 두드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공연만 500회를 넘긴 '타악의 명인'이다. 또 손꼽히는 오토바이 마니아이기도 하다.

김대환씨의 삶에는 온통 반야심경이 녹아있다. 아침에 일어나 반야심경 한편을 쓰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한다. 40여년동안 반야심경과 살다보니 쓰고 외는 것이 몸에 배었다. 프리제트 타악연주가로서 북을 두드릴 때도 입으로 반야심경을 외우며 박자를 맞춘다. 비행기를 타고 갈때도,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때도 내프킨에 반야심경을 쓴다.

이번 '음각전'에서도 선을 보였지만 그는 좌서(左書)도 잘 쓴다. 좌서는 우서보다 2배 이상 힘과 시간이 들어간다. 그는 좌서를 쓰면서 고행하는 수행자들을 연상한다.

초서(草書)의 대가인 중국의 진화종이 인정할 정도로 초서체에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김대환씨가 그렇다고 스승을 두고 정식으로 글씨를 배운 것은 아니다. 좋은 글씨를 찾고 그것에 대한 미학적인 연구를 게을리 않았다. 무엇보다 쓰고 또 쓰고 하루 몇시간씩 글씨삼매에 빠진 노력의 결과다.

김대환씨는 68년 동남아 여행중 상아에 깨알같은 글씨를 조각하는 중국노인을 보고 세각(細刻)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불심이 깊은 그는 "남에게 경을 읽어주는 법보시가 그 무엇보다도 큰 공덕이라고 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말씀을 남에게 보여주자, 알려주



◇김대환씨는 세계적인 프리제트 타악연주자로도 명성이 높다.



##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전수생 및 학인 모집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는 전수생 및 학인을 모집합니다.

6개월  
과정

-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 법
- ◇ 나비춤 - 다게작법, 도랑계작법, 사방요신작법
- ◇ 의식 -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시식, 소대(사십구재 전과정), 점안식
- ◇ 바라춤 - 천수바라,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육계바라
- ◆ 교수진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10호 보유자 박일초 스님 직강

- 개강 일시 : 2003년 6월 9일(월요일) 오후 2시
- 모집 인원 : 00명 수시 모집(FAX 접수 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월·수 -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본교는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2-79 화춘원빌딩 2층 (전철 1호선 백운역 하차 - 남부역 방향으로 5분거리)  
TEL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바라춤·나비춤만 3개월 과정으로 따로 강습 받을 수 있음.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장 박일초